



나종훈 전남도지회 간사(전남낙협 계장), 차상순 협회 대의원, 박석오 전남도지회장, 최맹한 전남도지회 감사, 조용현 협회이사, 이상두 전남도지회 대의원_ (사진 좌측부터)

냉철한 사고, 뜨거운 열정으로 행동하는 전남도지회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의나 서적은 매우 많아 그 내용을 접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만인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추진력과 한결같은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전반적인 협회사업에 있어 열성적인 관심과 통합된 목소리로 아낌없는 조력자로서 잘 알려진 전남도지회는 회원 개개인의 단합된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그러한 기반을 서서히 구축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도지회장의 역량과 노력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 전남지역의 낙농을 넘어 대한민국 낙농을 걱정하는 박석오 도지회장을 만나 전남도지회가 걸어온 길과 그의 낙농철학을 들어본다.



뭐든지 우리가 선봉이다!

주도면밀, 일사분란, 전광석화... 전남 낙농가들을 대표하는 전남도지회는 늘 그런 모습인 듯하다. 낙농진흥회 문제 등 유달리 피해를 안고 버텨야만 했던 낙농역사 속에 도지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 극복해보자는 심정에서의 발로였으리라.

“사실 과거 전남지역은 크게 동부와 서부가 갈려 뜻을 같이 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

만 도지회 중심으로 단합해야만 한다는 필요성 인식이 회원 개개인이 실천으로 나타나기까지 결코 적지않은 세월과 노력이 있었다”며, “이로서 전남지역 378농가 전체가 어디 소속 농가이든, 얼마나 납유하든 우리 전남도지회 회원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박석오 도지회장은 말한다.

모든 일은 소통에서 시작

전남도지회의 단합은 소통에서 나온다고

협회 조용현 이사는 말한다.

“수많은 낙농악재 속에서 협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려하는지에 대해 지역 농가들이 잘 알아야 한다. 아울러 도지회 운영에 있어서도 역시 무엇이든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하며 이는 소통에서 이뤄진다”고 말한다. 더불어 “실제 전남도지회장을 비롯, 전남 임원들은 협회 이사회 참석 직후 귀가하는 차안에서 회의결과를 요약한 문자를 회장단 전체에 발송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회원들의 현안에 대한 이해와 발빠른 대응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자부한다. 협회가 하는 일은 일반 회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만사의 기본인 소통을 바탕으로 협회 사업에

충실히 동참할 수 있었다는게 한결 같은 회원들의 생각이었다.

누가 뭐래도 낙농의 주체는 낙농가!

지난 2013년 진흥회 쿼터를 팔고 타유업체로 넘어가는 위장폐업에 대해 전남·북 지역의 대응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남지역 농가들 스스로 생존권사수 차원에서 일체 매수치 않기로 한 결의를 계기로 전국쿼터관리 이력제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예전에 농림부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시절 원유수급불균형 사태때 ‘낙농가들은 주인이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냥 기분 나쁠 수만은 없었다. 말로만 그

회원들이 많이 듣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는 전남도지회





- ① 전남도지회 결성 대회 모습(1992.8.17)
- ② 도지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역대 전남도지회장 사진들
- ③ 원유수급안정대책 규탄대회(전남, 2003.5.14)
- ④ 낙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 (2004. 8. 24. 광주공원 앞)

칠 게 아니라 우리 농가 모두가 낙농관을 이끄는 주인이 되자는 각오로 행동하려 했다. 진정 우리가 주인이라면 모든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박석오 회장은 말한다.

나를 못믿으면, 협회비 내지 마시오

전남도지회는 2년 째 협회비 최초 100% 완납 도지회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물론 권역 내 1개 집유조합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저마다 납유처와 납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주류가 소수의 처지를 이해

하고 원만히 이끌어 간다는 원칙으로 운영했다고 박석오 회장은 말한다.

누군가의 유대를 강제한다는 것은 민감한 일이므로 협회비 거출 한 달 전에 도지회가 회원들에게 이를 미리 예고하고 협회 예결산 및 상반기 활동 등을 전함으로서 협회비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나를 못믿겠으면 협회비를 내지 마시오”라고 공언하여 협회비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회원들의 공감으로 이뤄낸 협회비 100% 완납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도지회의 투명한 운영이 아니었다면 얻지 못할

결과였으리라 회원들은 말한다.

낙농에 도움되는 일은 뭐든지 한다

목장경영이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든 회원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전남도지회의 강점이다. 도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낙농도우미 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이 수립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온 끝에 관철시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청에 요구르트와 과일을 싸들고 제 집 드나들듯이 뱃심있게 추진한 결과다.

수급문제가 대두되는 최근에는 낙농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자는 뜻에서 도지회 총회

를 통해 지역유업체 유제품 소비홍보 캠페인을 전개기로 결의하였다. 낙농·유업의 상생의 마음을 실천해보자는 것이다. 목표치는 납유량 100kg 당 1박스씩 구매해서 관촉. 이같은 자구노력에 전남도청 농업정책국에서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얻어 내기도 했다.

후계낙농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구체적이다. 목장마다 아버지와 후계낙농인들간에 경영방식의 차이나 재산권 행사 등으로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는 현실을 큰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마찰을 줄여보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이에 전남도지회는 전남 후계낙농인들 모임체에 친목이나 교육목적으로 자치적 운영을 위해 얼마간의 지원을 한 바



회원들이 많이 듣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는 전남도지회



지난해 6월, 선진목장 견학을 위해 경기 안성지역의 목장을 방문한 전남도지회와 후계낙농인들. 선진낙농기술을 접하기 위해 전남지역 후계자들은 매년 이러한 기회를 마련한다고 한다.

있다. 단, 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정기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大道無門

“소통과 투명한 관리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논리를 도지회장 권한으로 밀어붙일 뿐이기에 거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기주관이 강한 지회장으로 통하는 박석오 회장이 말한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이 연상되는 그의 자신감 뒤에는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회원들이 있었다. “어떤 논의든 지역에서 공론화를 거쳐 얻은 결론을 갖고 이 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소신있게 말할 수 있다. 농가 개개인이 전하지 못하는 생각을

대신 전하는 것은 도지회의 소임이다. 그래서 도지회장인 나 자신을 낙농인의 안녕을 빌어주는 당골례(무당)라 생각한다.”고 그는 말한다.

결코 사람잡는 선무당이 되지는 않겠다는 그는 “과거 낙농의 기반이 비포장도로라 한다면, 원유가격 연동제 시대가 열린 지금은 아마도 고속도로를 닦기 시작한 단계라 볼 수 있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 예측가능한 위기에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우리 낙농산업은 선로(레일) 위의 기차처럼 순탄히 달려야 한다고 그는 여전히 못다한 말들을 대신했다. ☺

〈취재 : 교육홍보부〉